

2013 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 기 간 : 2013. 7. 12 ~ 7. 20
◆ 국 가 : 스페인, 포르투갈



2013년 8월 19일



경 상 북 도 의 회
Provincial Council of Gyeongbuk-do

공무국외연수 개요

1. 여 행 국 : 스페인, 포르투갈
2. 여행목적 : 의정현안 사항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선진행정 체험
연수로 도민생활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
3. 여행기간 : 2013. 7. 12(금) ~ 7. 20(토)
4. 보고서 작성자 : 연수단장 박성만
5. 여행자 인적사항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교육위원회	박 성 만	단 장
농수산위원회	정 영 길	간 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고 우 현	
농수산위원회	곽 광 섭	
농수산위원회	권 영 만	
기획경제위원회	김 희 수	
농수산위원회	나 기 보	
문화환경위원회	박 권 현	
문화환경위원회	박 기 진	
문화환경위원회	배 수 향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 경 임	
건설소방위원회	이 영 식	
문화환경위원회	장 경 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 옥 주	
교육위원회	홍 광 중	
농수산전문위원	심 상 박	의회사무처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주무관	김 명 철	"

목 차

I. 연수개요	1
II. 연수국가 현황	4
1. 스페인	4
2. 포르투갈	8
III. 연수내용	10
1. 세계적인 명소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및 이미지 제고 방안 ...	10
2. 세계문화유산 활용실태 및 관광자원화 방안	15
3. 농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17
4. 사회복지 관련 정책 및 시스템 비교 견학	20
IV. 연수를 마치며	22

2013 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I. 연수 개요

☐ 목 적

- 21C 지방자치시대에 해외 지방자치도시의 정책·제도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 특히 서유럽의 스페인·포르투갈의 농산물 유통제도,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정책, 노인 요양시설 등에 대한 우수 사례를 도정에 접목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연수기간 : 2013. 7. 12 ~ 7. 20

☐ 연수국가

- 스 페 인 - 바로셀로나, 세비아, 알메리아, 톨레도, 마드리드
- 포르투갈 - 리스본

☐ 연수내용

- 연수과제 : 농어업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 방안
- 주요테마
 - FTA대응 농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 세계적인 명소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및 이미지 제고 방안
 - 세계문화유산 활용실태 및 관광자원화 방안
 - 사회복지 관련 정책 및 시스템 비교 견학

□ 연수일정

날짜	방문도시	교통편	시간	일 정
7. 12(금) (1일차)		항공	14:40 19:20 23:05	■ 인천국제공항 출발 ■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착 ■ 스페인 바로셀로나 도착
7. 13(토) (2일차)	바로셀로나 (스페인)	전용차량	전 일	■ 도심지 공원 및 공공디자인 조성 - 도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조성 및 구도시와 현대의 신도시가 조화로운 공공디자인 사례 연구
7. 14(일) (3일차)	리스본, 신트라 (포르투갈)	항공	오 전	■ 스페인 바로셀로나 → 포르투갈 리스본
		전용차량	오 후	■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관리 - 문화유적지내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비교 견학
7. 15(월) (4일차)	세비아 (스페인)	전용차량	오 전	■ 포르투갈 리스본 → 스페인 세비아
			오 후	■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 문화유산 보존실태 및 관광자원화 방안
7. 16(화) (5일차)	그라나다 알메리아 (스페인)	전용차량	오 전	■ 스페인 세비아 → 스페인 그라나다, 알메리아
			오 후	■ 선진 농수산 생산기반시설 - FTA 대응 농수산 생산기반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7. 17(수) (6일차)	알메리아 푸에르토리피세스 (스페인)	전용차량	오 전	■ 스페인 알메리아 → 스페인 푸에르토리피세스
			오 후	■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 지역특색 및 역사성을 접목한 스토리텔링 개발 등 관광객 유치 방안 ■ 스페인 푸에르토리피세스 → 스페인 톨레도
7. 18(목) (7일차)	톨레도·마드리드 (스페인)	전용차량	오 전	■ 톨레도 문화재관련기관 - 역사적 건축물의 지정 및 관리방안, 관광정책 등
			오 후	■ 마드리드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 관련 정책 및 시스템 비교 견학
7. 19(금) (8일차)	마드리드 (스페인)	항공	12:35 15:15 18:30	■ 스페인 마드리드 출발 ■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착 ■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
7. 20(토) (9일차)		항공	11:50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연수의원 명단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고
	17명	
도의회 부의장	박 성 만	단장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정 영 길	간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고 우 현	
농수산위원회 위원	곽 광 섭	
〃	권 영 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김 희 수	
농수산위원회 위원	나 기 보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박 권 현	
〃	박 기 진	
〃	배 수 향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 경 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이 영 식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장 경 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채 옥 주	
교육위원회 위원	홍 광 중	
농수산전문위원	심 상 박	의회사무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주무관	김 명 철	〃

II. 연수국가 현황(스페인, 포르투갈)

1. 스페인(Spain)

가. 국가현황 (2012년 기준)

① 일반현황

국명	스페인 왕국(Reino de España, Kingdom of Spain)
위치	서부유럽 이베리아 반도 (지중해 발레아레스 제도, 아프리카 서북쪽 카나리아 제도, 북아프리카의 세우타, 멜리야 지역 포함)
면적	505,963km ² (한반도의 2.3배, 남한 면적의 5배), 17개 자치주로 구성
수도	마드리드(Madrid)
인구	4,727만명 ('12.1.1 주민등록기준)
기후	- 지중해안: 지중해성기후, 내륙: 대륙성기후 - 여름: 내륙은 고온건조, 겨울: 낮은 일조량, 우기
주요도시 (인구수기준)	Madrid(650만), Barcelona(555만), Valencia(258만), Alicante(194만) Sevilla(194만) 등
민족	이베로족
언어	- 공식어: 스페인어(castellano) - 4개자치주(까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발렌시아) 언어공용
종교	국민의 94% 이상 로마 가톨릭 신자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후안 카를로스 1세 (D. Juan Carlos I), 1975년 11월 즉위
입법부	양원제(상원 265석, 하원 350석)
정당	국민당(PP) 및 사회노동당(PSOE)이 정국 주도 이외 좌익연합(IU), 까탈루냐 연합당(CiU), 바스크당(PNV) 등 활동

② 경제지표

GDP(명목)	1조512억유로('12년)
1인당GDP	2012년기준 22,772유로(약\$29,289* 대한민국\$23,113)
실업률	25.0% ('12년평균)
물가상승률	2.7%('12년평균)
화폐단위	유로(Euro)
산업구조	농·어업(2.5%), 제조업(15.5%), 건설(8.3%), 숙박/운송/도소매(23.4%), 공공행정/보건/교육(16.2%), 금융/보험(4.0%), 정보통신(3.9%) 등
교역규모	수입 2,534억유로, 수출 2,226억유로, 무역수지(적자) 308억유로

③ 한-스페인 관계

양국관계 주요일지	○ 1950. 3 외교관계수립 ○ 1970. 4 주스페인상주대사관개설 ○ 1973.10 주한상주대사관개설
교민	○ 교민수:4,080명(IBERIA 반도내2,883명, Las Palmas 1,197명) - 주요도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라스팔마스(카나리아 제도)

※ 자료 : KOTRA

나. 스페인 개관

스페인의 정식 국명은 스페인 왕국(Kingdom of Spain)으로 스페인어로는 에스파냐 왕국(Reino de Espana)이다. 유럽의 서쪽 이베리아 반도에 있으며, 국토 총 면적은 505,963km²로 한반도의 약 2.3배(남한면적의 5배)이며 17개 자치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4,727만명이고 대다수의 라틴족 외에 원주민인 이베리아인, 로마인, 게르만인, 아랍인 등 다양한 혼혈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4% 이상이 가톨릭을 믿는다. 공용어인 스페인어는 중국어, 영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이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어라고 하면 카스티야 지방의 방언을 가리키지만, 카탈루냐, 바스크 등에서는 각각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1936년 스페인 내란 이후 프랑코 장군의 독재 체제에 있던 스페인은 1975년 장군의 죽음 이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며 입헌 군주국이 되었다. 국가원수는 스페인 왕실 가족국왕인 후안 카를로스 1세로 직접 통치하지 않으나 외교 등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정부는 내각 책임제로 총리와 양원제의 의회가 이끌고 있다. 독립된 광역 자치 지역 17개와 자치 시 2개, 도 5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자치 지역에는 국가 전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에서 대표를 임명하여 수도인 마드리드와 연계된 정책을 펴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성이 강한 스페인은 자치주의의 특징이 뚜렷하여 갈리시아, 바르셀로나, 바스크 지방 등은 지금도 시위와 테러 등을 통해 독립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다. 스페인의 지역 구분

스페인은 국토의 3분의 1이 산지로, 피레네 산맥, 칸타브리아 산맥, 모레나 산맥, 메세타 고원 등이 있어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지형이 높다. 또한 지형과 기후에 따라 다양한 지역 문화를 가지고 있다.



〈 스페인 지역지도 〉

1) 북부 지역

북부 지역은 피레네 산맥에서 포르투갈 국경까지 높은 절벽과 좁고 긴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은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화를 막기 위한 기독교도들의 성지 순례 길목이었기 때문에 10세기 전후에 들어선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가 많이 남아 있다. 갈리시아와 바스크 지방 등이 북부 지역에 속한다.

2) 동부 지역

지리적으로 프랑스와 가까워 유럽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옛 수도원이나 로마 건축물 등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다. 농업과 경공업이 발달하였고, 역사상 강력한 해상력을 자랑하던 카탈루냐 지방과 바르셀로나가 동부 지역에 속한다.

3) 중부 지역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가 있는 중부 지역은 포도주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으며, 특히 라만차는 포도주만 생산하는 지역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스페인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하여 로마 유적지를 비롯한 중세 시대의 저택과 고딕 양식의 대성당,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성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4) 남부 지역

안달루시아 지방이 넓게 뻗어 있으며, 동쪽의 사막 지대와 습지, 네바다 산맥의 산봉우리와 해안까지 다양한 자연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포도와 오렌지, 올리브가 재배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포도주인 셰리주가 생산된다. 또한 이곳은 이슬람 왕국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지역으로,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 건축물과 문화, 음식 등에 남아 있다. 플라멩코와 투우는 안달루시아 지방을 대표하는 문화이며, 세비야와 그라나다가 남부 지역의 주요 도시이다.

5) 스페인 제도

스페인 령의 섬으로는 지중해의 발레아레스 제도와 아프리카 북서쪽의 카나리아 제도가 있다. 스페인 동쪽 지중해 교차 지점에 위치한 발레아레스 제도는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모로코 서쪽 열대 지역에 위치한 화산섬인 카나리아 제도는 14세기경 탐험가들에게 발견되어 스페인령으로 선포되었다.

라.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관계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다. 한반도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유럽 사람이 스페인 출신의 신부 세스페데스였으며, 20세기 초 스페인 사람 블라스코 이바네스는 <조선 기행문>을 펴내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은 스페인에서 생활하다 여생을 마쳤다. 그가 교향악단을 창시한 마요르카 시에는 '안익태 거리'가 있다.

한국과 스페인은 1950년 정식 수교를 맺은 뒤 1970년 상주 대사관을 만들어 교류하고 있다. 스페인에는 약 4,080명의 한국 교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라스팔마스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2. 포르투갈(Portuguese Republic)

가. 국가현황(2012년 기준)

① 일반현황

국 명	포르투갈공화국(The Portuguese Republic)
위 치	유럽 남서부
면 적	92.141km ² (한반도의 2/5)
수 도	리스본(Lisbon, 시내 48만명, 통근권내 203만명)
인 구	1,070만명(2011년), 해외이주자 460만명
기 후	대서양, 지중해 및 대륙성 혼합기후이며, 건기(5-10월)와 우기(11-4월)로 구분됨
민 족	켈트족, 이베리아족, 게르만족, 라틴족 등
언 어	포르투갈어
종 교	가톨릭(90%이상이나 국교는 아님)
정 부 형 태	이원집정부제인 반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총리가 일상적인 국정 운영 담당,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보유
국 가 원 수	Cavaco Silva 대통령 (2006.3.9 취임, 사민당출신) -직선으로 선출되며 임기5년, 1회한 연임 가능
입 법 부	단원제(임기4년, 230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선출)
정 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국민당, 공산당 등
독 립 일	1910.10.5(독립공화국 선포)

② 경제지표(2010년 기준)

GDP(명목)	1,725억 유로(2,494억달러), GDP성장률(1.4%)
1인당GDP	16,224유로(23,456달러)
실 업 륜	10.8%(취업인구 498만명, 실업인구 60.3만명, 경제활동인구 52.5%)
물가 상승률	1.4%
화 폐 단 위	유로(EURO)
산 업 구 조	금융서비스업 54.9%, 상업·요식업 19%, 공업 13.1%, 건설업 6.5%, 전기·가스·수도사업 4.0%, 농림수산업 2.3%
교 역 규 모	수출 368억 유로, 수입 568억 유로, 수지 -200억 유로
관 광 수 입	76억 유로(GDP의 4.4%), 외국인 관광객수('08년):1,346만명

③ 한-스페인 관계

양 국 관 계	1961.4.5 외교관계 수립
주 요 일 지	- 1975. 6. 11 주포르투갈대사관 개설 - 1988. 8월 주한포르투갈대사관 개설
교 민	59명(2006년기준)

※ 자료 : 주포르투갈대한민국대사관

나. 포르투갈 개관

정식명칭은 ‘포르투갈 공화국(República Portuguesa)’이다. 면적은 9만 2152km², 인구는 1070만명(2010)이다. 수도는 리스본이며 공용어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다. 포르투갈이라는 국명은 국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 포르투(오포르토)에서 유래한다.

포르투갈의 영토는 이베리아 반도의 본토 이외에 대서양의 아조레스 제도와 마데이라 제도를 영토로 한다. 1974~1975년에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모잠비크·카보베르데·상투메프린시페·앙골라가 잇달아 독립하고, 1976년 동(東)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 병합되었으며, 1999년에는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어 총면적 209만km²에 이르던 전성기의 해외 영토가 대폭 축소되었다

지중해·북서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의 4지역을 잇는 해상교통의 결절점(結節點)에 위치하여 ‘지리상의 발견’ 시대에는 에스파냐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해외 영토를 보유하였던 해양국가로, 그러나 식민지 무역에서 획득한 부(富)가 국내의 근대산업 형성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는 에스파냐와 더불어 유럽에서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1910년의 정교분리(政敎分離) 이래 헌법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었으나 국민의 대부분이 가톨릭교도이고 가톨릭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크다. 그밖에 소수의 프로테스탄트가 있다.

포르투갈의 2010년 현재 GDP의 구성은 농업 2.3%, 공업 13.1%, 금융·서비스업 54.9%, 상업·요식업 19%로 농업의 비중이 낮으며, 올리브, 포도, 밀, 옥수수, 쌀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특히 포르투갈에서 수출되는 포도주 ‘포트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수산업도 중요한 산업인데 1인당 생산 소비량도 많고, 통조림은 주요수출품에 속한다. 삼림자원으로는 코르크 및 수지(樹脂)가 있으며 특히 코르크 생산량은 세계적이다.

포르투갈의 문화는 전통적인 지방문화와 리스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문화로 구분된다. 다양한 역사적 사건은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로마 양식 등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겼다. 특히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은 18세기의 경제적 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민요인 파도(Fado)의 여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 한국과의 관계

포르투갈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의 하나이다. 한국과는 1961년 4월 국교를 맺었다. 1973년 6월에 한국의 주(駐)포르투갈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Ⅲ. 연수내용

1. 세계적인 명소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및 이미지 제고 방안

가. 스페인 바로셀로나

바르셀로나(Barcelona)는 지중해 연안의 서구적인 분위기를 지닌 항구도시이며, 항만규모와 상공업 활동에 있어서는 에스파냐 제1의 도시이다. 교외지역을 포함한 바르셀로나는 비옥한 해안평야에 펼쳐져 있으며, 항구와 더불어 에스파냐 최대의 산업도시임. 또한 건축가 가우디를 낳고 거장 피카소를 키운 예술가들의 고장이기도 하다.

« 주요 명소 »

① 세계문화유산 -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Sagrada Familia)

지금도 건설 중인 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1883년 3월 19일, 성 요셉 축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완성된 것은 지하 예배당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미완성 작품이지만 가우디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힌다. 엄청난 규모와 아름다운 곡선, 섬세하게 조각된 내부가 인상적이다.

② 시의회 결정 시영공원 - 구엘공원(Park Guell)

구엘(Guell) 백작이 약 60여채의 영국식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코자 안토니오 가우디(Antoni Gaudi)로 하여금 조성(1900년~1914년). 입지 및 지형적 여건상 당시에는 실패하여 미완성으로 종료. 1922년 시의회 결정으로 시영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구엘공원은 곡선 위주 설계, 나선형 층계,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 등을 특징으로 하며, 접시와 유리병 등을 깨트려 그 조각을 타일처럼 사용한 것 등 화려한 타일을 이용한 모자이크 기법을 도입하여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함.

지중해를 향해 펼쳐진 바르셀로나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고, 숲이 우거진 공원에는 한스와 그레텔 동화 속의 빵집, 물을 내뿜는 용의 조각, 극장, 뱀 모양의 벤치 등이 가우디의 천재적이고 독특한 개성을 표현해 주고 있음.



【사그라다 파밀리아대성당】



【구엘공원】

③ 피카소 박물관(Picasso Museum)

1963년에 개관한 이래 차츰 주변 건물을 연결해서 전시장을 확장했다. 소장품은 유화를 비롯해 회화 약 3,000점, 그 밖에 조각과 도자기 등 피카소의 모든 예술 작품을 망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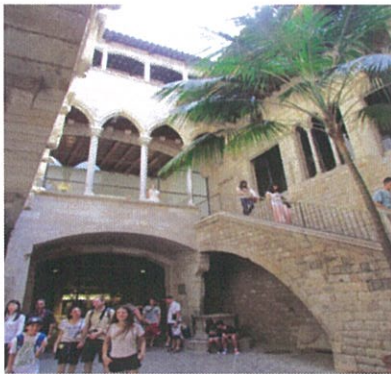
작품은 유소년 시절부터 만년까지 연대별로 전시하고 있으며 작품이 변해가는 흐름을 느끼면서 감상할 수 있다. 종이접기나 공책 귀퉁이에 그린 소년 시절의 귀중한 작품도 있어 '피카소 이전의 피카소'도 만날 수 있다.

④ 스포츠마케팅의 현장 - 몬주익 언덕(Montjuic)

몬주익 언덕(Montjuic)은 바로셀로나 서부에 위치한다. 고도 213m로 도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지하철 역과 몬주익을 잇는 케이블카 푸니쿨라(Funicular)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장관이다. 올림픽 주경기장, 갤러리, 박물관, 야외극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⑤ 도시디자인 시범지역 - 람블라스 거리(Ramblas Street)

람블라스 거리(Ramblas Street)는 카탈루냐 광장에서 파우 광장까지 약 1km에 달한다. 거리 주변에는 서민적인 잡화점과 거리 예술가 등 우리가 연상하는 유럽의 거리 풍경이 그대로 펼쳐지는 곳이다. 산책로에는 세계적인 예술가인 호안 미로가 디자인한 모자이크가 바닥에 깔려 있어 볼거리를 선사한다. 파우 광장에는 승선장과 콜럼버스 탑,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다



【피카소박물관】



【몬주익 언덕】



【람블라스 거리】

나. 포르투갈 리스본

리스본(Lisboa)은 15세기 중엽부터 해외 식민지에서 흘러들어오는 재물들로 인해 리스본은 대도시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서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렸으며 1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어 버렸는데 그후 폭발 후작의 힘으로 부흥을 도모하여 현재와 같은 근대적인 도시가 조성되었다.

« 주요 명소 »

① 리스본 중심 행사광장 - 로시우 광장(Rossio Square)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있는 광장으로 정식 이름은 '동 페드로 광장'이지만 로시우 광장으로 더 알려져 있다. 광장 중앙에는 솟아 있는 원기둥 정상에 동 페드로 4세의 동상이 있다. 광장은 13세기부터 리스본의 중심지로 모든 공식행사가 열려왔고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리스본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② 대항해시대 상징조형물 - 제로니모스수도원(Jerónimos Monastery)

마누엘 1세가 엔리케 왕자의 위업을 칭송하고, 바스코 다 가마의 세계 일주를 기념하여 엔리케 항해왕자가 지은 예배당 자리에 16세기 초 건설했다. 마누엘 양식을 대표하는 이 장엄하고 화려한 건물은 해외로부터 얻게 된 부를 토대로 지은 것으로 대항해 시대의 영화를 반영한 수도원이라 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 벨렘탑(Bellem Tower)

타호강 근처에 있는 벨렘탑은 4층의 등대로서, 1515~1521년 프란시스코 데 알다가 가마의 업적을 추모하여 건물 모퉁이마다 감시탑을 세우는 형식으로 지었다. 포르투갈 특유의 마누엘 양식을 띠고 있으며 밧줄·조개·바다풀 등의 장식을 새겨넣고 충안을 둔 흉벽 등을 설치하였으며 1983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로시우 광장】



【제로니모스 수도원】



【벨렘탑】

④ 발견기념비(Padrao dos descobrimentos)

1960년 앙리케 왕자의 500주기를 기념하여 만든 높이 52m의 기념물이다. 범선을 주제로 하여 바다를 향해 출범하는 웅장한 분위기가 그 선두에 있는 것은 앙리케 항해왕자이며 그 뒤에 천문학자, 선교사, 선원, 지리학자 등 이 시대에 제일선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대리석으로 만든 광장 중앙의 세계지도에는 세계각지의 발견연호가 기록되어 있다.

다. 시사점

우리연수단이 방문한 바로셀로나(스페인), 리스본(포르투갈)은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맞아 도시마케팅 요소를 발굴하여 도시를 세계 시장에 마케팅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인에 따른 산업연관분석” 사례를 보면 “2009년 총 생산과급효과는 투입액 5조 8천억 대비 10조원, 부가가치 과급효과는 약 8,400억원, 고용과급효과는 약 7만 2천명인 것으로 분석”되어 외국인 방문에 따른 도시마케팅전략의 경제적 과급효과가 상당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도시마케팅 정책과 전략이 도시정책의 중요한 핵심과제로 오늘날 급부상하고 있으며, 바로셀로나는 도시마케팅을 통하여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대구에서 개최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지방도시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 하였고, 2013년 8월 터키에서 개최되는 “2013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를 세계에 마케팅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세계 각국이 도시마케팅을 통해 그 도시의 경제, 재정, 고용 등의 과급효과가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에서도 시·군의 도시마케팅 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하는 종합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 세계문화유산 활용실태 및 관광자원화 방안

가. 스페인 톨레도(TOLEDO)

톨레도는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져 있는 스페인 중부의 도시이다. 톨레도 주의 도시이며 카스티야라만차(스페인어 : Castilla-La Mancha) 자치지역에 포함된다. 198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유적이 공존하는 장소이며, 스페인의 옛 수도이기도 하다. 스페인 역사상 수많은 유명인을 비롯한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살았다. 톨레도는 철제 생산과 검 제작으로 유명하다. 여전히 시 중심부에는 칼과 철제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1561년 펠리페 2세가 궁정을 톨레도에서 마드리드로 옮기면서 고도 톨레도는 잠시 동안의 침체기를 겪는다. 톨레도는 이슬람계의 칼리파 왕조 시대에 예술과 과학의 조화를 이룬 최정점의 아름다움을 달성한다.

고도 톨레도는 타구스 강의 협곡과 함께 세 면이 둘러싸여 있으며 많은 역사적인 장소들을 간직하고 있다. 스페인의 수석 대주교인 대성당 알카사르(Alcázar), 중앙 시장 격에 해당하는 소코도베르(Zocodover) 등이 해당된다.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30여개의 종교회의가 톨레도에서 있었다.

톨레도 대성당은 1226년에서 1493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로마의 부르주 대성당을 모델로 삼아 지어졌다. 대성당은 무데하르의 건축 특질도 반영하였다



【톨레도 시가지】



【톨레도 문화제청】

나. 톨레도(TOLEDO) 문화재청 방문

톨레도는 로마시대 성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로마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 톨레도 시청과 의회, 문화재청 등 3개기관에서 문화재를 공식 지원하고 있음.

문화재청은 톨레도 구시가지의 한 건물 “The caves of Hercules”(이곳은 헤르쿨르스의 동굴이라 불림)을 직접 구매해 이 곳을 사무실로 이용하며 일대 문화유산 정보를 모두 갖고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시민들이 집을 구입할 때 문화재청에서 건축가와 고고학자 등이 직접 보내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개조 또는 보수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공사를 할지 조사방식을 결정함.

대개의 경우 건물 외관은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초공사부터 공법을 제시하며 문화유산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보수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며 공사 비용을 문화재청에서 지원함.

톨레도 문화재청 “줄란드(45.여)” 실장은 보통 건물을 구입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결정이 나면 보수공사를 하기 까지는 3-4개월 정도 승인 절차가 걸리며, 공사에 들어가기 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유지 보수지원 관련직원은 20명, 고고학자 4명으로 톨레도 문화재청은 최근 국제경기 악화로 톨레도시의 관광수입이 줄어들면서 문화재 예산이 대폭 감소돼 보수공사가 전면중단 상태임.

다. 시사점

톨레도는 도시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 박물관으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였다. 건물의 외관은 철저히 보존하면서 그 속에서 생활하며 전통가옥들이 상점, 호텔로 이용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전통,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상품화하는 뛰어난 능력이 돋보이는 도시였다.

톨레도와 같이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는 실제적인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위주의 실용적 개발방향과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각 개발 대상지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자원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문화자원에 관광자원화를 시도하고자 할 것이다.

3. FTA대응 농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가. 아그로팔메리아(AGRUPALMERIA) 스페인 최대 토마토 경매장 방문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알메리아 주 인근에 위치한 스페인 최대 토마토 농업협동조합(경매장)인 아그로팔메리아(AGRUPALMERIA) 경매장은 토마토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며, 네덜란드 경매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경매된 토마토는 대부분 동유럽 국가들에 수출한다.

알메리아 지역의 시설재배비닐하우스는 알메리아 주에 3천개 정도나 되는 등 일대를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알메리아시의 경제 성장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 서부영화의 촬영지가 될 만큼 황무지였던 알메리아는 유럽의 28%에 달하는 시설재배단지(2위 프랑스 18%, 3위 네덜란드 16%)로 변화했다.

아그로팔메리아는 매일 오전 7시 토마토 등 신선한 과일이 들어오면 상자를 쌓아두고 중매인들이 과일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시 입찰에 참여한다.

경매는 보통 20여명의 중개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수기에는 1일 2회, 비수기에는 1일 1회 경매가 이뤄지며, 모니터를 통해 그 날 시세에 따라 먼저 최고가격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경매장 측에서 가격을 서서히 떨어 뜨릴 때 중개인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버튼을 눌러 낙찰을 받는 방식이다.

도매상 프란시스코(30)씨는"과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최초 가격의 20% 미만까지 낙찰율이 떨어지지만 대개는 60-70% 선에서 낙찰되고 중개인이 원하는 크기가 고르고 과일의 상태가 좋으면 최초가격의 80% 이상 낙찰된다."라고 밝혔다.

경매는 9-10월 성수기에 최고 100만 킬로그램을 처리하고 보통 하루 경매물량이 40만 킬로그램에 이르고 있다. 아그로펠마리아에는 매일 오전 7시 토마토가 들어오면 농가에서 1차 선별해서 들어온 토마토 등 과일을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선별되고 정보가 컴퓨터에 자동저장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 시사점

농산물 경매제도는 공개시장이 형성되고 출하조절도 가능하다는 장점과 구매자가 반대하여 담합 할 경우 저가격 또는 불안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개별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경매로 판매되는 경우보다 일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경매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하기도 한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아그로펠마리아 토마토경매장은 알메리아의 대규모 시설재배단지시설과 인접하고 있어 유통 효율이 높고, 현대적 설비의 대규모 보관창고시설, 전자경매 시스템을 통하여 입고되는 많은 양의 토마토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효율적 운영이 돋보였다.

우리의 농업유통정책도 복잡한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계획적인 생산체계를 유도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판매 처리 능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도덕한 상거래 행위를 근절시키고 유통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집행을 위해 정확한 유통통계와 정보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목적은 생산자에게는 상품의 적정가격 보장과 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이며, 소비자에게는 기호에 따라 적정가격의 최상의 품질을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유통구조의 비용을 절감하여 최상의 생산품을 제공하여야만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의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토마토 경매입찰 견학】



【아그로펠마리아의 토마토 창고】

4. 사회복지 관련 정책 및 시스템 비교 견학

가. 마드리드 사설양로원 Albertia 방문

의학의 발전과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해 인간의 생존연령이 높아져 각 국마다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7%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최근에는 저출산 경향과 함께 노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선진국들보다도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금의 추세로 가면 오는 2026년 경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노령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인프라 및 소외된 노인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절실하다. 우리는 마드리드에 있는 사설 양로원 Albertia 방문하여 시설 견학 및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스페인에서는 재정문제 등으로 모든 노인을 지원하기 보다는 장애인노인을 집중지원(장애가 없으면 국가지원 전혀 없음)하고 있으며 사설양로원은 아파트 형태 또는 일반 양로원 형태로 운영된다고 한다.

국립양로원과 사설양로원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사설양로원 입소자격은 65세 이상 노인과 60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설양로원은 2006년부터 법이 개정돼 60세 이상 장애인이 입소하면 국가 지원을 받는데, 1급은 국가지원 100% 등 장애정도에 따라 국가지원이 차등 지원된다.

우리연수단이 방문한 마드리드주의 사설양로원 Albertia는 수용인원이 260명으로 이 가운데 60명이 국가지원을 받는 60세 이상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다. 사설양로원 Albertia의 경우 월 1,400유로~2,000유로, 우리 돈으로 월 210만원~300만원을 받는 우리나라의 실버타운과 비슷한 성격이며 각종 치료시설과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입소자격은 수익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는 등 자격에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바로 나가야 하는 시스템. 스페인 가정은 대부분 노인들이 자녀(막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설양로원에 들어오는데, 마드리드 주에만 사설양로원만 600여개 있으며 대개 180명~26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Albertia 총괄책임자 마누엘 캐로사(52)씨는 “국가에서 전체 수용인원을 먼저 정하고 각 사설양로원에 할당 인원을 정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원장과의 토론】



【Albertia 양로원】

나. 시사점

스페인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우리연수단이 방문한 Albertia 양로원은 시설규모가 크고 주변 환경이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복지시설도 잘 되어 있었다. 일반개인의 경우 입소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월 1,400유로~2,000유로(월 210만원~300만원)의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복지수혜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음을 알수 있었다.

스페인은 1970년대 들어 30여 년간의 독재정치에서 벗어난 스페인은 연금과 무상의료, 출산장려금 등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했다. 세금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공짜’인 무상의료보험 제도도 들어왔다. 스페인 의료보험의 경우 어떤 환자든 1유로만 내면 공짜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스페인 복지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20%를 돌파한 데다 세금을 내지 않는 노인 인구도 급증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한다.

과다한 복지지출은 치명적인 국가 재정위기로 가져왔고 지금까지 ‘복지’ 혜택에 길들여 온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었다.

우리는 스페인의 예에서와 같이 내실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내용의 바람직한 결정을 통해 복지예산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순환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V. 연수를 마치며

우리 연수단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스페인, 포르투갈은 유럽중에서는 농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속하며, 또한 세계적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분야에서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 우리나라도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농산물 유통에 있어 농산물 제값받기, 공정거래, 유통능력 향상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며

생산자에게는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의 최상의 품질 제공을 위해 농산물의 상거래 문란 행위를 근절하고, 유통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한 유통통계의 정보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시 마케팅과 관련 스페인은 관광객수로는 세계 네 번째, 관광수입면에서는 세계 두 번째를 차지하는 관광대국이다. 관광수입이 국가 총수입의 10.2%를 차지하고 고용의 11.4%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2012년 스페인을 찾은 관광객수는 5천 8백만명에 이른다.

스페인은 약 40개의 관광홍보 전략 국가를 설정하여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고, 다양한 언어별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관광전시회 등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5대계획으로 관광정보 네트워크 촉진(EDITUISMO), 관광산업에 관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연계(TURINTER), 관광상품화 촉진(TURCENTRAL), 관광상품의 질적 향상 (TURISCAL), 호텔활성화 촉진(HOTEL OK) 등 부문별 육성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관광선진국이 된 이면에는 관광 촉진을 위한 역동적이고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의 전개, 특화된 관광상품의 개발, 중앙 및 지방정부와 업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체계적인 관광산업 육성정책, 질적인 측면의 다양한 평가체계의 구축 등 차별화된 정책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관광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열린 사고방식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 철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혁신 등 미처 챙기지 못했던 작지만 큰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원칙과 방향이 서고 정부와 업계, 시민이 합심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관광대국으로서 우리의 위상 변화가 앞당겨 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스템 관련 스페인은 민주국가로 재 탄생한 후 복지제도의 도입을 서둘러 처음 시작할 무렵 1975년에는 서유럽 지역 평균 사회보장 지출 비율에 비해 스페인은 절반수준에 못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서서히 사회보장 지출 비율이 증가했으며, 주로 연금 수급권이 확대되고,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제도인 연금과 무상의료, 출산장려금 등의 적극적인 복지제도 시행으로 재정적자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오늘날 국가부도 가능성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

스페인의 복지사례를 보면서 재정에 맞는 복지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탄력적 사회복지정책 운영이 복지제도의 선결 요소임을 알려주었다.